

## 教授像 有感

金 容 善

(全南大 教育學科)

5월은 계절로도 그러하지만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이 들어 있어 마냥 즐거워 해도 좋은 달인가 싶었는데 어설피고 서러워해야 할 달이라는 것을 요즘 와서 더욱 느끼게 된다. 緜陰芳草勝花時로 노래하던 5월이 江山號哭萬人咽이 되어 버렸으니 누구 가슴엔들 즐거움이 있으랴. 제자들이, 자식들이 달아준 카네이션 꽃도 生氣를 잃었고, 싱그러워 해야 할 5월이 암울로 일렁인다. 들려 오는 것은 군호로 착각되는 노호와 요란한 금속음, 어느 구석에도 自然을 찬미하거나 宇宙가 지닌 오묘를 思索할 여유는 남아 있지 않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式의 파워 게임(power game)만이 제각기 지니고 있는 長技대로 연출되고 있을 뿐이다. 주변을 아무리 살펴 보아도 누구를 감싸거나 편들어 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모두가 자기 폐의 세력을 떼거리로 불러 가면서 내 편이 안 될 놈은 아예 敵으로 집 찍어 버린다. 그러니 말이 하나 처럼(如出一口) 될 수밖에 없고, 힘 센 쪽 몸짓을 흉내내기에 바빠질 밖에 없다. 良心이니 正義니 獨自性이니 하는 것을 반추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뜻하지 않은 不幸을 당하기 십상이므로 그런 것들은 일찌감치 다락 속에 처박아 놓

아야 한다. 공연한 것 끼고 있다가 봉변이라도 당하게 되면 호소무처로 일만 맹랑하게 만든다. 자기 목소리, 자기 글을 찾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사실 教育이란 무엇이나 했을 때 ‘自我實現’, ‘行動의 바람직한 變化’, ‘원용무예의 全人育成’ 등 좋은 술어들이 동원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고 事理를 제대로 분간하여 올바르게 處身할 수 있는 人間이 되게 하는 일이다. 이 경우, 分擘이란 善惡, 正邪, 是非, 曲直, 眞假, 優劣을 가릴 수 있는 판단 능력을 말한다. 흔히 이야기되는 反省의 思考(reflective thinking), 直觀 思考(intuitive thinking)를 길러 주는 일이다. 그리하여 자기 나름의 持論을 가지고 獨自的으로 行動할 수 있는 主體人(independent person)이 되게 하는 일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教育은 이와 같은 일에 성공하기는 커녕, 짜여져 있는 틀에 맞추어 規格화된? 平均인만을 양산하는 데 급급해 온 나머지 드디어는 ‘教育의 破局’, ‘學校의 荒廢化’를 초래시켰다고 비판한다. 아동·학생이 天賦로 지닌 生動性·創意性·自發性의 싹을 잘라 버리고, 注文대로 生産하는 學校工場이 되게 하는 일에 방관자

가 되었거나 방조자가 된 敎師들은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도 어떤 해야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정해진 몸짓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서 맞이하는 스승의 날은 차라리 괴로운 날이다. 敎師란 所定의 지식과 행동을 잘 익히도록 하는 技도 있어야 하나 가르친 內容대로 스스로도 실천해 가는 垂範의 能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세상에서 옳지 않은 일이 無道하게 행해지고 있으면 그래서 안 된다고 막아서는 勇氣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설사 막아서지 못하더라도 ‘아니다’라고 ‘아닌 것’에 대하여 소리칠 정도는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怯弱 때문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의 敎員들은 言權과 威身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있어, 敎育이 제 모습을 갖게 하는데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고작 甲種勤勞所得稅를 물고 있는 敎授職業人(teaching employee)으로 만족해야 할 現實이다. 그래서 意欲도 士氣도 줄어들고 自剛적인 ‘敎授者’ 소리가 창춘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알맹이 ‘當局’이라는 자리가 뒤바뀐 오늘에는 더욱 無力의 化身처럼 투영될 때가 많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까지 敎授職을 다른 顯職과 바꾸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 바꾸자 해도 마땅한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나 꼭 그래서만은 아니다. 배운 것이 그 일뿐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일밖에 없어서만도 아니다. 알고 보면 배우는 일이 人間이 지닌 本來의 欲求(the love of learning)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일 또한 本有의 欲求(the love of teaching) 일런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學生들이 잘 배운 일은 그 당사자에게 더 없는 기쁨(intellectual excitement)이고 잘 가르친 보람은 敎師自身の 정신 위생과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敎師가 지닌 人間으로서의 幸福은 바로 그 자리인 것이다. 더우기 自己한테 배운 學生들이 認定해

주고 私淑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굳이 孟子的 三樂을 들추지 않더라도 헤아리기 어려운 만큼 큰 위안이라 할 것이다.

참으로 敎師라고 ‘立’했으면 잘 가르치고 싶고, 아울러 認定도 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세상의 일들이 어려운 일투성이라 하더라도 人間을 敎育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생각되는 때가 많다. 敎人難을 절감하게 된다. 무릇 人間에 있어 많은 만남 가운데서 父母를 잘 만나는 일이나 세상을 잘 만나는 일도 중요한 일이지만, 敎師를 잘 만났다는 것은 장본인을 위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훌륭한 스승 아래에서 훌륭한 人材가 훈도되기 때문이겠다. 알고 보면 人物이란 태어났다기보다 形成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훌륭한 스승을 만난 것을 곡식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농군을 만난 셈이 된다. 한 알의 씨앗은 알맞은 時期를 택하여 기름진 땅에 심어져야 하는 것인데 곡식이란 심어 놓는 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대도 두면 심지 않은 雜草의 勝勢에 못이겨 마친내 雜草 속에 묻혀 버린다. 곡식 아닌 풀을 말끔히 뽑아 버리고 堆肥를 알맞게 주면서 病虫을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성실하고 지혜로운 農軍은 어떤 곡식이건 가꾸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한 눈을 팔지 않는다. 그들은 가꾸는 일에 힘 쓴 만큼 거두어 들이는 일에 더욱 마음을 쓰고, 어떻게 갈무리하고 어느 時期에 市場으로 낼 것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씨를 고르고 그 種子에 맞는 땅을 선택하는 일에서 비롯하여 수확한 곡식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體制化된 전략(systemized strategy)을 가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敎師도 우선 兒童·學生의 適性和 能力을 파악한다. 素質이 어느 쪽에 있는가도 확인한다. 그런 다음에 현재 지니

고 있는 學力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水準으로 얼마만큼의 畧을 教授할 것인가를 알고 있다. 그리하여 學生 저마다가 지닌 個人差(individual difference)를 고려하여 授業을 進行시켜 갈 才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所重한 일은 教師란 한 사람 한 사람의 學生을 人格人으로 尊重해야 한다는 基本 哲學을 가지고 자신의 精誠을 바쳐 全人(whole person)으로 薰陶해 내겠다는 투철한 教育愛를 지녔다는 點이다. 이 教育愛야말로 慈雨와 같은 것이어서 人間形成의 源泉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이 時點에서 내 一生을 돌아 보면 누구보다도 훌륭한 父母를 만났다는 일을 自負하면서 나의 오늘이 바로 부모님의 恩功으로 여겨지는 터이나, 韓院 初·中·高의 學校時節, 참으로 훌륭한 스승의 功德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國民學校 1학년 담임이셨던 姜大賢 선생님, 中學校 때 國語를 가르쳐 주신 余起鴻 선생님, 師範學校 3년 때 담임이셨던 殷容基 선생님, 이 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評價하든 내게는 지금도 如前히 ‘잊혀지지 않는 스승’으로 뇌리에 영상화되어 있다. 姜선생님은 日帝가 ‘內鮮一體’를 내세워 ‘國語常用’ 정책을 강행, ‘朝鮮語’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음에도 우리들을 學校 밖으로 데리고 가서 ‘朝鮮語’ 공부를 시킨 분이다. 그런 저런 일로 日本人 校長과 다투고 滿洲로 떠나신 뒤 去年에 一時 歸國하셨던 선생님을 잠깐 만나 볼 수 있었다. 그것도 내 研究室에서 내외분을 함께. 薔國의 忠정이 어떤 것인가를 몸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다. 余선생님은 文人이셨다. 法學을 전공한 분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文學書籍, 내가 國語를 좋아하게 된 것도 그 분 영향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선생님은 간혹 우리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절심을 함께 하자 하시는데 절심보다는 오가는 길에 들려준 文學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맛

이 있었다. 나는 지금도 春園을 사모하다 病死한 日人 친구의 여동생 이야기, 우수한 韓人 留學生이 까닭없이 日營에 끌려간 뒤 정신착란자가 된 이야기, 學兵으로 出戰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渡日한 六堂의 言動 등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의 말씀마다에 서려 있었던 그 精神이 아니었나 여기고 있다. 日本人에게 저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하셔도 克日의 혼을 심어준 선생님이다. 또 殷선생님은 西洋史에 놀랍도록 達通하신 분인데 그 분은 절대로 많은 畧을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가장 요긴한 대목을 トラ마틱한 言語를 구사, 듣고 있는 學生들로 하여금 감탄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도록 만들어 버림으로써 나머지 부분은 自身들이 안 읽어 볼 수 없을 만큼 進진한 흥미를 붙여 준다. 부르너(Bruner, J.S.)가 말하는 ‘教科語’를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분이다. 내가 教授法을 터득하는 가운데 가장 요긴하게 여기는 話術은 선생님의 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셈인데 나의 弟子에게 물려주고 싶을 정도다. 그랬으니 생각이 깊어졌다고 생각되는 어른스런 나이와는 관계없이 人生을 안내받게 되고 스승이라기보다 長兄과 같은 情感으로 師弟關係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教育에서 薰染感化라는 말은 이런 教育力의 發露가 아닌가 싶다.

아름든 내가 私淑했던 몇 분 스승의 人品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의 教授像을 그려 보고 싶다. 어려운 세상이 될수록 필요한 것은 人物이요, 人材인데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은 ‘勝於父’할 수 있는 아들들을 얻었을 때이고 教師로서의 보람은 ‘勝於師’할 弟子를 두었을 때일 것이다. 한 家門의 용흥이 二世의 立志躬行에 달려 있고 한 國家의 발전이 學園에서 폭발하고 있는 勉學의 熱氣에 달려 있는 것이고 보면 子息과 學生世代의 향배에 가장 큰 關心을 쏟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깊은 關心과 愛情의 強度가 높으면

높을수록, 敎育에 대한 信賴는 확산되고 敎育에 거는 期待는 제고되기 마련이다. 어느 面에서 보면 政治·經濟·軍事보다도 國民 各自가 敎育에 두는 比重은 훨씬 직접적이고 絶對하다고 말할 餘가 없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의 學校, 오늘의 敎員은 단순한 學校機關 혹은 職業人일 수가 없다. 비록 學校가 其所任을 다하지 못한 채 無力해진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현재 우리 時代가 안고 있는 여러 難題들이 敎育의 힘을 빌지 않고는 解決을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人口問題, 資源枯渴 문제, 環境汚染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의 不條理, 非行, 不道德의 문제 등도 敎育의 힘을 통하여 匡正되어진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렇듯 敎育이 莫重한 役割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先·後進國家를 막론하고 敎育에 쏟는 熱情은 대단하다. 그러함에도 敎育은 그만큼 成果를 올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現實이다. 理由를 캐 보면 시행되고 있는 敎育의 量과 質에서 대충은 밝혀지는 것이지만 문제는 어느 경우에서나 敎員의 質에 敎育의 成敗가 달려 있다는 말에는 누구나 首肯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장 탁월한 者가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the best must teach)”는 말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한 사람 敎師가 敎員 職分으로 자기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社會體制 아래에서는 큰 期待를 거는 자체가 無理이다. 블룸(Bloom, B.S)이 말한 대로 敎育課程에 규정되어 있는 內容을 모두 잘 다루었다 해서 敎育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경우에는 그런 일과 별로 관계없이 큰 敎育의 成果를 얻게 되는 異變이 생기는 것이다. 그것은 敎師의 사랑이 담긴 미소에서, 인정어린 한 마디 말에서 우연히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의 말을 빌면 따로 潛在的 敎育課程(hidden

curriculum)’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 획기적인 條件인 것이다. 공부 시간이 아닌 특별 활동이나 學校行事를 진행시켜 가는 가운데 그런 場(session)이 흔히 생겨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學校가 知識 爲主로 치달으면서 外面했던 特別活動(extra curricula activity)의 영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 로저스(Rogers, C.)는 사람을 참으로 달라지게 하려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式的 敎育보다는 敎師 自身이 지닌 自己一致(congruency), 순수함(genuiness)이 바탕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學生이 지닌 不足한 面이나 失手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하지 말고 큰 包容力으로 감싸 주는 度量이 있을 때라고 하였다. 敎師는 學生을 대할 때 무조건적 존중(unconditional respectation)과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하라고 권고하였는데, 이렇게 보면 敎育은 敎師의 情感이 어느 狀態에 있느냐에 따라 좌우됨을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면 내가 되고자 바라는 敎授像의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 지는 듯하다. 만일 敎授가 自己 哲學의 定立 없이 自己 學問의 영역에서 두드러진 일만을 가지고 學生의 敎育에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다. 뿐만 아니라 學問 以外의 일은 敎授圈域 밖의 일이므로 餘他的 일에 關與하게 되면 學問 發展에 阻害를 준다는 立場에는 同調하나 敎授가 지녀야 할 人格, 人品의 문제를 外面하고 敎授·學習의 관계가 所期한 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또 合當한 社會參與라 하더라도 敎授職 以外의 일에 글이나 얼굴을 갖게 展示하는 문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한 일은 良心이 命한 대로 眞理의 守護를 위하여 굴절 없는 勇氣를 갖는 일이라는 생각도 한다. 당장의 人氣에 영합하거나 目前의 이익에 현혹되어 事理대로 行動하지 않는 일은 드문 경우라 하더라도 敎授도 人間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失手を 저지르게 되는데 이런 때일수록 뒷 마무리가 개운해야 한다는 말이겠다. 반성, 참회, 고 너라는 말은 知性이 닳여 갈수록 그 切實함이 더해지는 것은 그대로 행하기가 凡然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이 어지럽다는 것은 常識이 막히고 眞理와는 거리가 먼 일들이 횡행되고 있음을 말한다. 막된 者들의 행동이 制止 당하지 않은 채 행패가 심한 데도 말리는 힘이 부친 때인 것이다. 이런 狀況에서는 본 것도 안 본 체, 들어도 못 들은 체 하는 것을 ‘賢明’으로 배워 온 터라 正작 正義·人道가 제창되어야 할 판에 눈 감고 緘口 不言해 버림으로써 惡의 발호를 막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노예로 전락하는 일까지 생긴다. 모두가 지켜야 할 準據가 무너져 버린 뒤에 새로 秩序를 세우는 일은 革命의 뒤치닥거리만큼 어렵다고 한다. 이럴함에도 그 時代와 社會의 향도 세력이라 할 教授들이 제 精神을 차리지 못하고 彷徨한다면 社會의 혼탁은 더해갈 뿐이다. 大學에서의 教授란 단순한 敎員일 수도 없지만 初·中等의 敎育機關에 종사하는 敎員과 같은 역할로

만족해야 할 위치는 아닌 것이다. 教授에게 요청되는 것은 탁월한 學問的 업적을 쌓아가는 일 이외에 그 時代와 社會를 열어나가는 가장 확실한 준거 세력으로서 信賴와 尊敬을 받아 마땅할 存在인 것이다. 그러자면 教授로서 지녀야 할 權威 문제가 거론된다. 만일 教授에게 學問的·人格的인 면에서 權威가 부수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야기될 것인가 상상해 보면 짐작할 수 있다. 教授가 스스로의 品位를 지켜가기 위하여 각별한 自己 修養을 수반하지 않는 일은 학문 研鑽을 소홀히 한 이상으로 教授의 權威를 훼손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나, 이러다 보면 敎壇에서의 教授 技術 문제가 뒷전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나 理想的으로 말하면 自己 專攻 領域에서는 獨步的 位置를 유지해야 하고, 人格面에서는 尊敬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教授 技量을 효과있게 발휘할 能力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學事處理에 있어서는 學生을 올바르게 指導한다는 立場에서 學生에게 有利하도록 問題 事態를 解決하는 태도를 지닌 教授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